

발행처 : 한국건강심리학회

발행일 : 2013년 12월 30일

발행인 : 이 민 규

인쇄일 : 2013년 12월 30일

주 소 : (660-701)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경상대학교

제작처 : 나노미디어(전화: 02-703-7507)

사회과학대학 임상/건강 심리 연구실 (151동 423호)

전 화 : 055-762-2080 팩스 : 055-772-1219

홈페이지 : <http://www.healthpsy.or.kr>

편집장 e-mail 주소 : rhoma777@hanmail.net

편집위원장 : 서경현(삼육대학교)

편집위원 : 강성군(강원랜드) 고영건(고려대학교) 권선중(침례신대학교)

김용희(광주대학교) 유제민(강남대학교) 장문선(경북대학교)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은 한국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건강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설을 게재하며, 건강심리학회의 공식적 학술 모임의 발표 내용과 건강심리학 분야의 국내 석·박사학위 논문 목록을 게재할 수 있다.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구독에 관해서는 한국건강심리학회로 문의하기 바란다.

Vol. 18, No. 4.

Decem. 2013.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published by

by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 per year and publishes original research articles and data. The Journal also publishes reports of the proceedings of academic meetings under the auspices of the Korean Society for Health Psychology,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reviews on the profession of Health Psychology, and a list of M. A. theses and Ph.D. dissertation in this area. Inquiries concerning the guidelines of the subscription for the Journal and the submission of manuscripts should be sent to: Editor, Kyung-Hyun Suh,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ahmyook University, 815 Hwarangro, Nowon-gu, Seoul, Korea(E-mail : rhoma77@paran.com)

Editor : Kyung-Hyun Suh(Sahmyook University)

Associate Editor : Sung-Gun Kang(Kangwonland Addiction Care Center), Young-Gun Go(Korea University), Sun-Jung Kwon(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Yong-Hee Kim(Gwangju University), Jhe-Min You(Kangnam University), Mun-Sun Chang(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ajwa-dong,
Jinju City, Gyeongsangnam-do 660-701
KOREA

이 학술지는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한국건강심리학회 임원진

회 장 이 민 규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수석부회장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국내협력부회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국제협력부회장 김미리혜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총무이사 최 성 진 (부산메리놀병원)
교육이사 박 준 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홍보이사 이 철 호 (법무부 포항교도소)
학술이사 박 지 선 (부산가톨릭대학교)
재무이사 장 문 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윤리위원장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편집위원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수련위원장 박 준 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선임이사 고 영 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권 선 중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 완 석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 청 송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안귀여루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 제 민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이 형 초 (인터넷꿈희망터센터)
정 경 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최 미 례 (육군사관학교 리더십센터)
최 훈 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감 사 김 정 호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고 문 손 정 락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사무국장 서 은 수 (경상대학교병원)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 18 권 제 4 호

[개관논문]

음악치료와 미술치료의 효과 개관 Chad Ebesutani · 김 미 리 혜 / 589

[경험논문]

수용전념치료가 정서조절곤란이 있는 청소년의 정서인식 명확성,
회피적 정서조절 및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허 예 슬 · 손 정 락 / 603

마음챙김과 수용 중심 프로그램이 몰두형 애착 대학생의
애착불안과 사회불안에 미치는 효과 석 정 민 · 손 정 락 / 627

명상기반 개입법에서 정적명상과 동적명상의 차별적 효과 김 완 석 / 643

긍정 심리치료가 우울경향이 있는 청소년의 행복감, 낙관성, 무망감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유 은 영 · 손 정 락 / 669

직접적 · 간접적 시각적 노출이 유아기 건강한 채소 섭취량에 미치는 효과
..... 주 정 현 · 정 경 미 / 687

한국형 성인용 게임중독 척도개발 및 타당화 최 훈 석 · 용 정 순 · 김 교 현 / 709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 측정-DERS의 심리측정적 속성 박 지 선 / 727

한국판 호기심 척도(K-CEI)의 타당화 연구
..... 심 미 영 · 엄 진 섭 · 이 선 희 · 김 교 현 / 747

남성 수형자와 일반인의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 한 수 연 · 정 구 철 / 763

수면과 정서조절은 스트레스와 걱정이 안녕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는가?
..... 심 태 경 · 이 민 규 / 783

대학생의 외향성과 자의식이 향유신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검증 윤 진 아 · 송 원 영 / 807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변인으로 김 정 희 · 안 귀 여 루 / 823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
냉소적 적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 경 현 · 신 현 진 · 양 승 애 / 837

애착과 자기초점적 주의가 감사와 빗짐에 미치는 영향 김 미 현 · 현 명 호 / 853

[Brief Report]

아동 및 청소년 암환자와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의 혐오민감도와
통증-공포 연합강도 간 상관 비교
..... 민 해 원 · 고 영 건 · 유 은 승 · 박 병 규 · 박 현 진 · 김 중 혼 / 869

자아존중감과 마음챙김의 관계 박 상 규 / 881

섭식행동에서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이론의 통합 이 민 규 / 891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변인으로[†]

김 정 희 안 귀 여 루[‡]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기는 다양한 심리적·인지적·신체적 욕구가 드러나는 시기인데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이 시기 적응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이 시기 적응의 지표인 자기조절능력과 학교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부모양육태도척도와 자기조절능력척도, 학교적응척도였다. 연구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중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민주적 양육태도가 자기 조절 능력과 학교 적응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용적 양육태도는 아버지의 경우에만 중학생 자녀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적응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자기조절능력이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매개변수이며 민주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사이에서는 부분 매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부모양육태도 · 학교적응 · 자기조절 능력

[†] 이 논문은 2012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안귀여루, (446-70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읍 산 6-2,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Tel: 031) 280-3484, E-mail: agyr7@kangnam.ac.kr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아동기와 성인기의 심리적 특성인 의존성과 독립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다른 발달시기에 비해 부적응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즉 청소년들은 한편으로는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주체성을 확립하려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에게 의존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정원식, 1975; 김민정, 2005).

이와 같은 시기에 청소년이 부모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따라 청소년들의 발달과업 획득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부모와의 관계는 달리 말해 부모가 가진 양육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자녀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환경적 변수가 된다(김신정, 김영희, 2007; 성선진, 2010).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내는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으로서 자녀에 의하여 지각되고 행동을 나타내는 반응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이동영, 199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Fishbein(1975)은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간주 하였다(정선희, 1999에서 재인용). 한편 Baumrind(1991)는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을 권위주의적 양육형태(authoritarian parenting), 민주적 양육태도(democratic parenting), 허용적 양육태

도(permissive parenting) 태도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Baumrind(1991)에 따르면 먼저 권위주의적 부모는 통제가 높고, 애정이 낮은 경우로 자녀의 양육에 있어 행동을 제한하고 많은 규칙을 부여하면서 무조건의 순종을 기대한다. 자녀의 생활을 규제할 때 규칙을 부과하는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규칙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강압적인 방법과 응분의 처벌도 사용한다. 두 번째, 민주적 양육 방법을 사용하는 부모는 애정과 통제가 모두 높은 경우로 자녀에게 많은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자녀들의 행동 규제에 대한 확실한 규칙을 정하고 자녀에게 적절한 요구와 기대를 갖고 애정적이며 수용적인 가정 분위기를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허용적 양육방법을 사용하는 부모는 애정은 있고, 통제가 낮은 경우로 자녀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거의 없고 자녀들의 행동에 대한 확실한 규제도 하지 않으며 가끔 사용하더라도 일관성이 결여된 수준의 양육형태이다.

부모-자녀관계와 적응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이 관계가 바람직하면, 자녀의 정서적 성장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부모-자녀관계가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박은미, 1993). 또한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Martin, 1975),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적인 태도가 자녀의 지적·정서적 발달과 정적 상관성이 있으며, 부모의 수용적인 태도가 자녀에게 안정감, 자신감을 가지게 해준다(이종승, 오성심 1982; Rosen, 1972)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즉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방식을 어떻게 지각하는가는 이들의 적응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기 조절(self-regulation)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머지 한 가지는 학교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자기조절 능력이 청소년의 나머지 다양한 발달 과업을 달성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행동적인 차원에서는 이들이 속한 가정 이외의 가장 중요한 환경인 학교적응이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Kopp(1982)는 자기조절능력이란 환경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며, 상황적 요구에 따라 활동을 시작하거나 멈출 수 있으며, 사회적, 교육적 장면에서 언어적 신체적 활동의 강도, 빈도와 지속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아동이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을 인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화 과정 중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런 특성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심리적 차원에서 중요한 발달과업이 자기 조절능력에 대해 살펴보면, 자기조절능력은 자신의 인지나 의식을 사용하여 행동을 실행하기 전에 계획하여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실행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행동들을 억제, 유보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안미경, 1996). 학교생활 적응에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중요한 특성의 하나도 자기조절능력이다. 자기조절 능력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고,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외부자극에 대한 자신의

행동, 사고, 감정을 다루는 기질적 능력이기 때문이다(양옥승, 2006; 윤영신, 2007). 자기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은 인지적 문제해결과 학업 성취에 있어서 낮은 성취를 보일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정서적·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나아가서는 폭력이나 파괴적인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성이 있다(Rose, 1997). 더욱이 이러한 성향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지속 될 수 있기 때문에(Mischel, Shoda, & Peake, 1988)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기에 있어서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은 하루 활동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 규칙 등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요구를 적절히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왕식, 임영희, 2004).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을 이규미(2005)가 정의한 하위체계인 학습,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측면으로 학교적응을 개념화하였다. 청소년은 부모를 통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학습하며,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기의 역할을 인식하고 부모의 생활양식 및 행동양식을 모방함으로써 사회규범에 맞는 행동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는 학교생활에서도 적용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박은미(1993)는 학교적응과 가정환경에 대한 연구에서 긍정적인 학교 적응 집단은 자신의 가정에 대한 평가에 있어 구성원 상호간에 더 친밀하고 개방적이라고 느끼고, 구기회(2005)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친밀하고, 개방적, 자율적,

성취적인 가정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더 잘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를 통해,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적응은 서로 높은 상관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적응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되어 연구되고 있으나 이시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기조절능력이나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특히 중학생의 자기조절 능력과 학교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자기 조절 능력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용인 및 수원 시내에 거주하는 중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은 총400사례였으며, 그 중 연구에 주요변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설문지나 무성의한 답변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360개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중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N=360)

	구분	빈도	(%)
학년	1학년	107	(29.7)
	2학년	149	(41.4)
	3학년	104	(28.9)
성별	남자	174	(48.3)
	여자	186	(51.7)

도구

부모양육태도척도. 이 척도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시형 등(1997)이 어머니, 아버지 각각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부모양육태도를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유형, 민주적 양육태도 유형, 허용적 양육태도 유형으로 구성한 것이다. 문항은 총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세 유형별로 점수를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양육태도 유형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 척도별 신뢰도는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Cronbach's $\alpha=.86$, 민주적 양육태도 Cronbach's $\alpha=.79$, 허용적 양육태도 Cronbach's $\alpha=.57$ 이었다.

자기조절 능력.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Kuhl과 Fuhrmann(1998)이 개발한 의지구성목록(Volitional Components Inventory ; VCI)의 하위검사인 자기조절 양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윤영신(2007)이 영어판VCI-short version을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기 조절 양식은 “불안해져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좋은 생각을 해서 기분 좋아지게 할 수 있다”, “문제가 생겨도 매번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 등 자신의 통제력에 대해 묻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전혀 아니다’에서, ‘아주 그렇다’에 반응하는 4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3$ 이다.

학교적응척도. 청소년의 학교적응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규미(2005, 2008)의 중학생의 학교 적응 질문지 총38문항을 4점 리커트식으로 구성하

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학교적응척도의 Cronbach's $\alpha=86$ 이었다.

결 과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고, 연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으며 각 변수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모 양육태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이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개검증의 마지막 단계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 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 test(1987)를 실시하였다.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아버지, 어머니 각각의 부모양육태도와 하위척도(권위주의적, 민주적, 허용적), 자기조절능력, 학교적응의 총점 및 그 하위척도(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간에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표 2).

연구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에 상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높을 수록,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높고, 다른 양육태도 역시 부모 간에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간에 상당한 일치도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양육태도는 대부분 자기 조절 능력및 학교적응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어머니의 허용적 양육태도만이 자기조절 능력및 학교적응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N=360)

	(1)	(2)	(3)	(4)	(5)	(6)	(7)	(8)
(1) 권위주의적(부)								
(2) 민주적(부)	-.558***							
(3) 허용적(부)	-.070	-.177**						
(4) 권위주의적(모)	.733***	-.451***	.025					
(5) 민주적(모)	-.414***	.708***	-.174**	-.521***				
(6) 허용적(모)	-.017	-.138*	.601***	-.045	-.094			
(7) 자기조절능력	-.237***	.367***	-.077	-.240***	.394***	-.023		
(8) 학교적응	-.140**	.362***	-.161**	-.151**	.401***	-.092	.578***	

$p < .05$, ** $p < .01$, *** $p < .001$.

부모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학교 적응의 성차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서 부모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학교적응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그 결과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t=2.998, p<.01$),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태도($t=-3.166, p<.01$),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t=2.684, p<.01$),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태도($t=-2.994, p<.01$), 어머니의 허용적 양육태도($t=-2.361, p<.05$)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더 권위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지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민주적 양육태도를 지닌 것으로 지각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의 정도를 확인해 보았다(표 4). 그 결과, 아버지의 경우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민주적 양육태도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앞의 상관분석에서도 확인된 바이다. 이때 민주적 양육태도의 설명력이

표 3. 부모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 학교 적응의 성차(N=360)

변인	남자	여자	t	
	(n =174) M(SD)	(n =186) M(SD)		
부모 양육태도	권위주의적(전체)	2.57(.56)	2.41(.60)	3.044**
	민주적(전체)	3.60(.57)	3.80(.61)	-3.251**
	허용적(전체)	2.05(.53)	2.20(.61)	-2.395*
	권위주의적(부)	2.57(.61)	2.37(.62)	2.998**
	민주적(부)	3.60(.61)	3.81(.66)	-3.166**
	허용적(부)	2.14(.60)	2.26(.67)	-1.748
	권위주의적(모)	2.63(.62)	2.45(.65)	2.684**
	민주적(모)	3.61(.63)	3.81(.65)	-2.994**
자기 조절	허용적(모)	1.98(.55)	2.14(.71)	-2.361*
	자기조절양식	2.47(.55)	2.31(.59)	2.669**
	의지적억제양식	2.37(.44)	2.32(.52)	.941
	일상스트레스	2.18(.56)	2.08(.66)	1.688
자기조절능력(전체)	2.67(.34)	2.68(.45)	-.420	
학교 적응	학교공부	1.69(.59)	1.61(.60)	1.151
	학교친구	2.12(.60)	2.17(.57)	-.704
	학교교사	1.49(.71)	1.48(.75)	.153
	학교생활	1.78(.64)	1.70(.60)	1.279
	학교적응 총점	1.75(.47)	1.75(.47)	.548

* $p<.05$, ** $p<.01$.

13.4%, 그 다음으로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의 설명력이 5.6%였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도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허용적 태도는 자녀의 자기 조절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 적

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경우, 민주적 양육태도,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허용적 양육태도 모두가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민주적 양육태도,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만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허용적 양육태도는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의 매개 효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표 4.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N=360)

예측변수	종속 변수	B	β	t	R ²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부)		-.215	-.237	-4.580***	.056***
민주적 양육태도(부)	자기	.322	.367	7.404***	.134***
허용적 양육태도(부)	조	-.068	-.077	-1.443	.006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모)	절	-.215	-.240	-4.649***	.057***
민주적 양육태도(모)	양	.349	.394	8.078***	.155***
허용적 양육태도(모)	식	-.020	-.023	-.424	.001

* $p < .05$, ** $p < .01$, *** $p < .001$.

표 5.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분석(N=360)

예측변수	종속변수	B	β	t	R ²
권위주의적양육태도(부)		-.110	-.140	-2.646**	.020**
민주적 양육태도(부)	학	.275	.362	7.249***	.131***
허용적 양육태도(부)	교	-.124	-.161	-3.065**	.026**
권위주의적양육태도(모)	적	-.116	-.151	-2.874**	.023**
민주적 양육태도(모)	응	.305	.401	8.228***	.161***
허용적 양육태도(모)		-.071	-.092	-1.736	.008

* $p < .05$, ** $p < .01$, *** $p < .001$.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매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자녀의 자기조절 능력의 매개 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 test(1987)를 실시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중 허용적 양육태도는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1단계에서,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162, p < .01$).

2단계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자기조절 능력의 관계분석에서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자기조절양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263, p < .001$). 3단계에서는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자기조절능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때 매개변수인 자기조절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eta = .576, p < .001$), 독립변수의 효과가 2단계회귀분석에서보다 작게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기조절능력은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매개변수임

표 6. 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 양식의 매개효과

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B	β	t	R ²	F
예측변수	종속변수					
1단계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부)	학교적응	-.110	-.140	-2.646**	.020	7.002**
2단계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부)	자기조절능력	-.215	-.237	-4.580***	.056	20.975***
3단계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부)	학교적응	-.001	-.001	.019		
자기조절양식		.505	.583	13.053***	.341	90.379***

표 7. 부의 민주주의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 양식의 매개효과

부의 민주주의적 양육태도		B	β	t	R ²	F
예측변수	종속변수					
1단계						
민주적 양육태도(부)	학교적응	.275	.362	7.249***	.131	52.983***
2단계						
민주적 양육태도(부)	자기조절능력	.322	.367	7.404***	.134	54.820***
3단계						
민주적 양육태도(부)	학교적응	.131	.173	3.786***		
자기조절능력		.451	.521	11.403***	.367	101.244***

을 보여준다. 가설 검증의 마지막 단계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 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 test(1987)를 실시한 결과, 유의한 매개 변수임을 검증하였다($Z=-4.331, p<.001$). 즉 자기조절능력은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유의미한 매개변수이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앞서와 동일한 절차로 확인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독립변수의 효과가 2단계 회귀분석에서보다 작게 나타났다. 한편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는데 이는 자기조절능력은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매개변수임을 보여준다. 가설 검증의 마지막 단계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 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 test(1987)를 실시한 결과, 유의한 매개변수임을 검증하였다($Z=6.429, p<.001$).

다음으로 아버지의 경우와 동일한 검증과정을

표 8. 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양식의 매개효과

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예측변수	종속변수	B	β	t	R ²	F
1단계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모)	학교적응	-.116	-.151	-2.874**	.023	8.260**
2단계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모)	자기조절능력	-.215	-.240	-4.649***	.057	21.615***
3단계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모)	학교적응	-.009	-.012	-.261	.335	88.494***
자기조절능력		.495	.575	12.841***		

표 9. 모의 민주주의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양식의 매개효과

모의 민주주의적 양육태도						
예측변수	종속변수	B	β	t	R ²	F
1단계						
민주적 양육태도(모)	학교적응	.305	.401	8.228***	.161	67.700***
2단계						
민주적 양육태도(모)	자기조절능력	.190	.250	4.861***	.062	65.257***
3단계						
민주적 양육태도(모)	학교적응	.157	.207	4.498***	.371	103.644***
자기조절능력		.428	.498	10.830***		

거쳐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기조절 능력이 완전 매개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검증의 마지막 단계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 test(1987)를 실시한 결과, 유의한 매개변수임을 검증하였다($Z=-4.415, p<.001$).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는데 자기조절 능력은 부분매개 변인임이 밝혀졌다. 가설 검증의 마지막 단계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 test(1987)를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매개변수임을 검증하였다($Z=6.950, p<.001$).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들 중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기 조절 능력과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민주적 양육태도, 허용적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민주적 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허용적 양육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민주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어머니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보이지 않고 민주적 양육태도를 보일

수록 자녀가 학교 적응을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민주적 양육태도의 설명력이 16.1%, 1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아버지의 허용적 양육태도가 2.6%,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2.3%, 아버지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2.0%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이 원만한 것으로 나타난 신정희(2007)의 연구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 중심적이고 민주적이며 격려를 많이 하고 애정적이며 합리적일수록 자녀의 학교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구기회(2005)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문교민(1994)은 어머니의 수용적, 애정적, 자율적 태도가 자녀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모두 부모가 자녀의 학교적응에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적절한 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이들의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시 한번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녀의 자기조절능력 역시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민주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보이지 않을수록, 민주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 중 민주·자율적·온정적 태도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최숙미(2007), 임명숙(201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이 부모의 양육태도나 학교적응사이의 매개변인, 혹은 중재변

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자기조절 능력은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매개변수이고 민주적 양육태도는 부분매개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기조절능력, 학교적응 역시 같은 양상을 보였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부모가 민주적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청소년들이 학교적응을 잘하고 자기 조절을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모의 권위적 양육태도, 민주적 양육태도와 학교적응사이에서 자기조절력이 완전 매개 변인이나 부분 매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장면에서의 적응에 부모양육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정 내에서도 자녀지도에 있어서 입시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자율성은 오히려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자율성이 이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에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회적 차원에서 올바른 양육태도를 키울 수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교육할 필요성이 있으며,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보일 때 청소년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간의 통합적인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청소년의 자율성과 관련해서도 이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사결정능력이나 자기탐색 등의 프로그램들이 학교장면에서 제공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토대로 앞으로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과 학교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 환경, 문화 환경, 학교 환경, 개인연령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서 일반화여 설명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구대상의 지역을 넓히고 좀 더 다양한 환경 속에 있는 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의 측정을 자기보고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자기보고식 측정이 가진 문제점과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기조절능력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모양육태도척도 외의 청소년의 개인적인 기질 및 성격 특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좀 더 심층적인 연구방법으로 관찰법이나 면접법 등의 연구방법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또래관계, 학교 및 교사와의 관계, 가정환경 등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다양한 변인으로 확대하여 인과관계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올바른 양육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청소년이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뿐만 아니라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교육 및 상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구기회(2005).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2005).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가정 및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신정, 김영희(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고찰. *부모자녀건강학회지: Vol.10 No. 2.*
- 김왕식, 임영희(2004).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 및 민주시민의식과의 관계. *교과 교육학연구. Vol.7 No.3 [2004]. 123-148*
- 문교민(1994). 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교적응.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박동춘(2008).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미(199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선진(2010).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련요인의 인과적 관계분석.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정희(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미경(1996).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옥승(2006). 3-6세. 유아의 자기조절력 측정척도개발. *미래유아교육학회지,13(2), 161-187.*
- 윤영신(2007).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관련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규미(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33-398.*
- 이규미(2008).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연구. *한국상담심리학회지: 학교, Vol.5, No. 1, 27-40.*
- 이동영(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형, 이세용, 정현희, 박현선(1997).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삼성생명사회정신건강연구소연구보고서 제97-7호.*
- 이종승. 오성심(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한국행동과학연구, 11권 1호 1-15.*
- 임명숙(2010).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희(1999). 청소년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1970). *인간과 교육.* 서울 : 배영사.
- 정원식(1975). *학교 환경론.* 서울 : 교육출판사.
- 정은진(2001).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 자아개념 · 학교적응간의 관계.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희(2010).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 *호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숙미(2007).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영희(2009).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umrind, Diana.(1991). "Parenting Styles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746-758 in Richard M.Lerner, Anne C. Peterson, and Jeanne Brooks-Gunn (eds.). *Encyclopedia of adolescence.* Garland Pub.Co. : New York London.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ecis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Fishbein, S. & Ai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6.
- Kopp, C. b. (1982).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43-54.
- Kuhl, J., & Fuhrmann, A.(1998) Decomposing self-regulation and self-control: The Volitional Components Inventory. In J. Heckhausen, & C. Dweck (Eds.),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across the life span*. 15-49. Hillsdale, NJ: Erlbaum.
- Martin, B. (1975). Parent-child relations. In F. D. horowitz(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Vol.4).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schel, W., Shoda, Y., & Peake, P. K.(1988). The nature of adolescent competencies predicted by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4), 687-696.
- Rose-Krasnor, L.(1997). The nature of social competence: A theoretical review. *Social Development*, 6, 111-135.
- Rosen, R. E. (1972). *Abnormal psychology* Philadelphia : W. B. Saunders Co.

원고접수일: 2013년 8월 21일

논문심사일: 2013년 9월 6일

게재결정일: 2013년 9월 28일

The Effects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a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for School Adjustment: Self-Regulation as a Mediating Variable

Jeong-Hee, Kim Gwi-Yeo-Roo Ah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angnam University

Adolescents are confronted by many psychological, and physical needs. In recent years, their adaptations can depend on parental attitudes of child rear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parents' rearing attitudes are perceived by adolescents' self-regulation and school adjustment behaviors. A total of 420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Yong-in and Suwon Area are being recruited for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asked to complete the demographic questionnaire,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 Self-Regulation Inventory, and School Adjustment Scal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mong three Parent's rearing attitudes as perceived by adolescents, the authoritarian and democratic attitudes significantly affect their self-regulation and school adjustment behaviors. Fathers' permissive attitudes only significantly affect the school adjustments. Secondly, self-regulation mediated the process between parents' rearing attitudes as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their school adjustments. Particularly, the authoritarian's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s decreased the self-regulation and school adjustment behaviors completely. Additio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ing studies are further discussed.

Keywords: parents' rearing attitude, self-regulation, school adjustment